

인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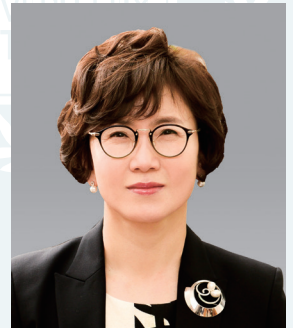
먼저 변함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발전을 이룩해 오신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오늘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을 만들었고, 미래의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1907년에 개교하여 올해로 간호교육 1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제 모두의 힘을 모아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져야 하며 그 책임이 바로 저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학장으로서 다음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변화와 혁신'입니다. 우리는 지금 급변하는 보건의로 환경 속에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단기적으로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호의 역할이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구성원 모두의 힘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공동체적 가치의 핵심인 공익, 공공성, 공동선(共同善, common good)의 원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호가 이미 오래전부터 추구해 오던 가치입니다. 서울대학교 간호인은 전문직으로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학문적 기틀을 닦아 왔을 뿐만 아니라 간호 실무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습니다. 변화하는 보건의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셋째, 저는 임기동안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세계 간호계의 중심으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계 대학의 리더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지식창조의 선도자가 되도록 토양을 다지겠습니다.



넷째, 이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간호인,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선한 간호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고 학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우리 학교 구성원들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앞으로도 국내외 간호대학들과 함께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사회가 요구하는 간호의 역할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건강한 미래사회를 이루어가는 세계적인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모습을 지켜봐주시시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장 최스미

간호대학 소식 01

간호대학 학장이 · 취임식

2017년 1월 5일 간호대학 강당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장 이·취임식이 열렸다. 제 13대 김성재 전 간호대학 학장의 이임사를 시작으로 제 14대 최스미 간호대학 학장의 취임사가 있었으며, 공로패 증정 및 학부생들의 꽃다발 증정식이 이어졌다.

제 14대 간호대학 학장단 인사는 다음과 같다.

제 14대 간호대학 학장단

학 장: 최스미 교수

부학장: 정재원 교수

학과장: 이남주 교수



간호대학 소식 02

교수동정 신임교수 소개: 장선주 교수(성인간호학)

안녕하세요. 2017학년도 1학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 신규 임용된 장선주입니다. 몇모르던 학창시절, 간호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장통을 겪었던 동시에, 간호에 대한 꿈을 키웠던 연건캠퍼스에 돌아와 후배를 제자로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부 졸업 후인 2002년부터 삼성서울병원 내과중환자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학교병원의 내과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며 임상현장에서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병원 재직 시절, 약 3년 동안 병원 최초의 교육전담간호사로서 활동을 하며 간호사, 학생, 병원 직원 등 다양한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상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간호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여 여러 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수년간의 임상경험, 그리고 교육전담간호사의 경험을 통해 저는 임상간호사, 교육자,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규간호사의 교육에 깊이 참여하며 그들과 많은 교감을 나누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간호학생이 간호사로 순조롭게 이행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교수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박사학위 과정 동안, 송미순 교수님의 지도하에 만성질환인 당뇨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하며 보건의로 취약계층의 건강행위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Eun-Ok Im 교수님의 ethnic minority women의 신체활동에 대한 연구에 post-doctoral researcher로 참여하면서 더욱 견고하게 형성되었습니다. 이 때, Sigma Theta Tau International Honor Society of Nursing으로부터 노인의 적극적인 건강행위 중 하나인 인터넷 건강정보 탐색행위를 설명하는 경로 분석

을 위한 연구비를 수주하였습니다. 이후 가천대학교와 충북대학교에 재직하며 당뇨병이 있는 노인의 건강행위 및 삶의 질, 노인의 인터넷 건강정보 관련 행위 분석, 장애인의 건강검진 매뉴얼 개발 연구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보건의로 취약계층 중 노인 그룹과 장애인 그룹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에 비해 높은 비율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어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사회적 배제 혹은 고립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에, 적극적이고 시기적절한 간호학적 접근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여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으로서 간호를 배우고, 간호사로서 임상간호를 수행하고, 교육자로서 학생을 교육하며, 연구자로서 탐구하는데 있어 늘 마음에 새기고 실행하고자 세 가지 H가 있습니다. 학문적 탐구능력을 통한 지식의 함양(head), 인간을 대하는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heart), 그리고 전문적 숙련도(hands)입니다. 저는 head, heart, hands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전문직으로서 간호가 발전하며, 궁극적으로 간호가 여는 건강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이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저의 신념처럼, 더 나은 그리고 더 발전된 간호학의 가치를 위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구성원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리나라 간호의 발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발전에 헌신하겠습니다.



간호대학 소식 03

연구실 탐방 사회심리간호 연구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사회심리간호 연구실은 이명선 교수님과 성인 간호학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인 연구실이다. 다양한 성인간호학 연구 분야 중에서 이명선 교수님이 중점을 두시고 있는 분야는 종양간호로써 종양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심리적 측면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현재 연구실에서는 유방재건술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전에 진행된 유방재건술에 대한 의사결정 경험, 유방재건술을 받은 여성들의 경험 연구에 이어, 유방재건술에 대한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적 트라이앵글레이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연구생들은 인문학 등과의 다학제적 연구 프로젝트에서 위암과 유방암 환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 체험 내러티브 연구에 참여하면서 인문학적 지식 함양에도 힘쓰고 있다.

2014년 교수님이 아시아종양간호학회 초대회장을 역임하시면서 2015년에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고, 많은 연구생들은 이를 통해 종양간호에 대한 지식 함양 및 국제적 안목을 키우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오랜 기간 대한질적연구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신 교수님의 지도 아래, 질적연구 관련 학술 세미나 및 학술대회 참석을 하며,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면서 질적 연구를 부논문 및 학위논문으로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심리간호연구실에서 진행하는 가장 큰 활동은 '한국유방암예방 홍보가사(www.huyk.co.kr) 교육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치료가 끝난 유방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유방암 예방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이다. 후원기관인 한국유방건강재단에 의하면, 이들의 강의는 일반 여성들이 가장 감명 받는 효과적인 유방암 예방 활동으로 손꼽히고 있다. 2004년 1회를 시작으로 14년간 열정과 끈기로 지속된 이 프로그램 활동은 매년 전국적으로 100~200개의 강의와 캠페인을 벌여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훌륭한 글로벌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유방건강재단과 함께 모델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6년 스승의 날 모임〉

본 연구실은 방학마다 매주 정기적 연구 모임을 갖는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모여 각자 진행하고 있는 연구 및 논문 준비에 대해 발표하고, 교수님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알찬 시간이 된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은 각자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멋진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다른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한다. 특히, 아직 많은 것이 낯선 대학원 신입생들에게 이러한 정기 모임은 친목을 다지고, 앞서간 선배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경험의 장이 된다. 매 학기 함께하는 개강 파티 및 연말 파티는 연구실 학생들을 더욱더 끈끈하게 연결하는 가장 기다려지는 모임이다. 오고가는 이야기 속에 힘든 점은 서로 보듬고 감싸 안으며, 학교생활과 연구를 지속하는 힘을 얻는다.

연구실의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성인간호학의 발전과 종양환자간호의 역량 강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박은영, 권은진, 차지은, 장혜영, 황혜민, 황영희, 유영미, 유미수, 김해진 교수님, 혈액종양전문간호사 설미이, 강영아 선생님, 서울대병원에서 간호에 힘쓰시고 계신 김혜숙, 이미미, 배지혜, 이현정, 황은경, 김수희, 김혜진, 박유진, 류민주, 양지연, 이혜연, 이미라, 이은주, 신호연, 강현주, 박미정 정희정 선생님,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재직 중인 석윤희, 안자영, 옥정희, 김은희 선생님처럼 셀 수 없이 많은 본 연구실 출신의 졸업생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이경은, 임승화, 서지영, 윤영희, 박열매, 서혜연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모든 구성원들이 학업과 연구, 직장 및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누구보다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매 일매일 간호대상자의 사회심리적 간호, 좀 더 따뜻한 돌봄의 간호를 꿈꾸며, 서로를 격려하며 연구에 애쓰고 있다

〈원고작성 : 성인간호학 전공 박사수료생 이경은〉



〈2016년 AONS Conference〉

간호대학 소식 04

행복한 나눔

2016년에도 여러 동문들이 간호대학의 발전을 기원하며 모교에 대한 애정을 담아 간호대학 발전기금을 기부하였다. 2016년 10월 6일에는 이은옥 명예교수(63졸)의 부조제막식과 송미순 명예교수(74졸)의 감사패 전달식이 개최되었다.

이은옥 명예교수는 1986년부터 서울대학교와 간호대학을 위해 기부해왔으며, 1억 원 발전기금 출연을 기념하여 간호대학 본관 1층 로비에 서 부조제막식을 거행하였다. 송미순 명예교수는 간호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담아 간호계를 선도하는 후학양성을 지원하고자 1억 원 발전기금을 쾌척하였고 간호대학에서는 이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이날 부조제막식과 감사패 전달식에는 간호대학 교수를 비롯하여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05

SNU 자유학기제 지원 간호대학 전공체험 프로그램

2016년 10월 28일 간호대학에서는 'SNU 자유학기제 지원 간호대학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하였다. 간호학에 관심이 있는 서울 시내 중학교 1학년 30명을 대상으로 간호대학 전공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은 활력징후 측정, 무균술 등의 간호시뮬레이션 실습을 직접 수행해보고 간호학박물관, 샤인센터 등 간호대학 내 주요 시설 및 서울대학교병원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Welcome to Nursing' 순서를 통해 간호학에 대한 소개를 듣고 프로그램 수료증 전달식을 가진 후 전공체험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었다.



간호대학 소식 06

2016학년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진로캠프

2016년 10월 7일 간호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2016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진로캠프'가 간호대학 본관 102호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김성재 학장의 축사로 시작된 진로캠프는 신정희 법무법인 광장 미국 변호사(79졸), 고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 단장(89졸), 설미이 서울아산병원 전문간호사(96졸)를 모시고 다양한 간호영역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진로캠프에 참가한 재학생들은 선배들의 현장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간호학도로서의 비전을 세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간호대학 소식 07

종합실기시험

2016년 11월 11일 졸업예정자 62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성취 수준의 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종합실기 시험이 시행되었다.

2013년부터 4년째 실시되고 있는 종합실기시험은 본교 간호대학 시뮬레이션위원회에서 매년 새로운 평가 모듈과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난소절제술 및 우울증 간호 모듈, 폐렴 환자 간호 모듈, 뇌졸중 환자 모듈의 총 3개의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2016년에 시행된 종합실기시험에서는 응시자 62명 중 42명이 1차 통과하였으며, 11월 25일 시행된 2차 평가를 통해 나머지 20명의 응시자 또한 모두 통과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08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 특별강연 : Heeseung Choi 교수

2016년 12월 7일 간호대학에서는 Heeseung Choi 교수의 서울대학교 교육상 수상을 기념하여 'English-medium education: Benefits, challenges, and strategies' 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하였다. Heeseung Choi 교수는 학생들이 전문 간호지식과 역량을 함양하는 동시에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대학교교육상을 수상하였다.

'문화 대응적 교육' 과 '동기부여' 라는 본인만의 교육철학에 기초하여 학생들이 프로젝트나 토의를 통해 강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 교수로 영어 강의의 전달력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학생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간호대학 소식 09

2016학년도 동계 교수 Workshop

2017년 2월 10일 2016학년도 간호대학 동계 교수 워크숍이 간호대학 본관 교수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간호대학 교수 및 조교 포함 총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미래지향 어젠다”라는 주제 하에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되었다. 최스미 학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획위원회 산하 task force team 활동 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김진현 교수가 “간호대학 캠퍼스 이전 추진”을 주제로 경과보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박연환 교수가 “간호대학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지난 10년간의 경과를 보고하였다.

발표 이후 전체 교수들은 캠퍼스 이전 추진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다.

오후에는 쿨디자인의 이상훈 대표를 모시고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동영상/강의자료 제작기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었고, 간호과학연구소장인 탁성희 교수의 “간호과학연구소 발전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 후에는 2018년에 있을 서울대학교 연구소 평가 준비 및 연구 진작 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간호대학 소식 10

제 57회 간호사 국가고시

2017년 1월 20일,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제 57회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이 시행되었다. 서울대학교 간호학과에서는 졸업자 3명 및 졸업 예정자 60명을 포함하여 총 63명의 학생들이 국가고시에 응시하였다. 최스미 학장, 정재원 부학장, 이남주 학과장, 조성현 교수 등 많은 교수들

이 서울공업고등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을 격려했으며, 간호대학 학생회를 주축으로 구성된 응원단은 4학년 선배들을 위한 식사와 간식을 준비하였다. 많은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98.4%의 국가고시 합격률을 기록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11

2017학년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 협의회

2017년 2월 16일 합춘원에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과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의 협의회가 있었다. 최스미 학장의 개회로 회의를 시작하여 간호대학과 간호부문에서 지난 학기 활동을 차례로 보고하였다.

또한 1학기에 있을 양 기관의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알리고 상호간의 협력을 다졌다.

간호대학 소식 12

제 71회 전기 학위수여식

2017년 2월 24일 제 71회 학위수여식이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2,422명, 석사 1,804명, 박사 699명 총 4,925명에게 학위를 수여하였다.

간호대학에서는 학위수여자 총 79명을 비롯해 간호대학 학장, 부학장, 학과장과 학위 수여자의 지도교수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이번 제 71회 전기 학위 수여식에서는 학사 58명, 석사 15명, 박사 6명이 학위를 수여하였으며, 13학번 전해원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여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13

제 5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우리대학은 2017년 3월 3일 3학년 학생 67명을 대상으로 제 57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거행하였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3학년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 나이팅게일의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인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로 촛불을 점화하고 선서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성낙인 총장, 박찬옥

교육부총장, 신희영 연구부총장, 황인규 기획부총장, 전용성 교수협회장, 김호 보건대학원장, 한중석 치의학대학원장, 김성준 의과대학 학생부학장, 양광희 간호대학 동창회장,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 진료부원장, 조정숙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 허성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간호대학 소식 14

환경개선

○ 본관 1층 로비, 102호강의실, 103호강의실 등기구 교체

- 일시 : 2016. 12. 26. ~ 2017. 01. 06.

- 내용 : 형광등기구를 절전형 LED 등기구로 교체

(6' 등기구 20W X 12EA, 8' 등기구 40W X 60EA,
사각투광등 30W X 10EA)

○ 함춘학생생활관, 지하 세탁실 바닥 환경개선

- 일시 : 2017. 01. 09. ~ 2017. 01. 16.

- 내용 : 세탁실 바닥타일 들뜸현상으로 철거 후 우레탄 도포

○ 본관 학과장실 세면대 및 행정실 싱크대 설치

- 일시 : 2017. 02. 16. ~ 2017. 02. 22.

- 내용 : 학과장실 및 행정실 급배수배관 설치와 세면대 및 싱크대 설치

○ 연구동 대강당 등기구 교체

- 일시 : 2017. 02. 22. ~ 2017. 02. 24.

- 내용 : 형광등기구를 절전형 LED 등기구로 교체

(다운등기구 40W X 48EA, 먼조명 50W X 40EA)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1

2017년 겨울 방학 특강

2017년 겨울방학 동안 '간호대학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세미나'와 '영어로 생의학논문쓰기' 특강을 진행하였다.

○ 간호대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세미나

- 일시 : 2017년 1월 19일 12:00~13:00
- 내용 : 간호대생에게 꼭 필요한 "IRB 심의 101"
- 강사 : 최희승(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영어로 생의학논문 쓰기

- 일시 : 2017년 1월 19일 13:00~17:00
- 강사 : 민양기(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2

2017년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센터별 활동1

이론교육개발센터 : 간호정책포럼

간호과학연구소 이론교육개발센터에서는 간호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한 강의와 토론의 장을 통하여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사회적 역할과 미래간호를 논의함으로써 국민건강향상과 간호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총 4차의 간호정책포럼을 진행하였다.

일시	주제
1차 (1/16)	간호인력 수급과 지역 간 불균형
2차 (2/17)	간호사 근무조건
3차 (3/17)	간호서비스 건강보험수가
4차 (3/31)	법과 현실 사이에서의 간호사 업무 범위와 역할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3

2017년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센터별 활동2

국제화산학협력센터 : 보건의료 및 간호 빅데이터 활용 워크숍

간호과학연구소 국제화산학협력센터에서는 2017년 2월 8일 간호대학 강당에서 급증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소개 및 활용방법에 대한 워크숍을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전문가를 모시고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강의 내용	강사(소속)
- 보건의료 및 간호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박현애
- EHR 빅데이터 및 활용 사례 소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및 활용 사례 소개	신순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관악지사장)
- EHR Visualization	김봉균 (책임연구원)
- 소셜 빅데이터 및 활용 사례 소개	송태민
- R 프로그램 실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보건의료 및 간호 빅데이터활용 워크숍〉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4

2017년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센터별 활동3

융복합중재센터 : 지역사회간호 현장에서 만나는 정신간호 실무 공동 워크숍

2017년 2월 18일 간호대학 강당에서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한국정신간호학회와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융복합중재센터의 공동주최로 지역사회간호 현장에서 만나는 정신간호 실무 공동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워크숍을 통해 교수자가 학생들의 관점에서 정신간호학 및 지역사회간호학의 교육내용을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찾고자 시행되었다.

강의 내용	강사(소속)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간호요구	전경자(순천대학교)
아동의 사회심리 간호중재	김수미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보건의 방문간호 대상 노인의 간호요구	김희걸(가천대학교)
노인 우울과 회상요법/의미요법	조선희(목포대학교)
지역사회 간호대상 가족의 간호요구	김춘미(선문대학교)
중독가정을 위한 정신간호 실무	김성재(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5

2017년 상반기 수요학술세미나 안내

최근 주목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테크놀로지의 의학 분야 활용부터 타학문의 최신지견에 대한 교내·외 강사들의 특강을 통해 지식과 교양을 함양하기 위한 상반기 수요학술세미나가 2017년 3월 8일부터 5월 24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날짜	강사(소속)	주제
1 3월 8일	엄중식 교수 (가천대 의과대학 길병원)	저개발국가의 의료지원
2 3월 22일	박현애 교수 (서울대 간호대학)	4차 산업혁명
3 4월 12일	백종우 교수 (경희대 의과대학)	우울증과 스트레스 관리
4 5월 10일	Suzana Brown 교수 (SUNY Korea)	Medical Data Collection Using Smart Phones: Case Study of Rwanda
5 5월 24일	조영태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인구변동과 미래



〈3월 8일 수요학술세미나-저개발국가의 의료지원〉



〈3월 22일 수요학술세미나-4차 산업혁명〉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6

Duke University 세미나

간호과학연구소는 2017년 4월 12일 Duke University의 학생교류 및 Academic affairs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Nursing Outlook의 편집장이자 Duke University 간호대학 학장의 영향력 있는 간호 학술지 게재에 대한 강의와 여성건강 분야에 저명하신

Eun-Ok Im 교수의 여성건강 연구 분야에 대한 강의를 진행되었다.

- 일시 : 2017년 4월 12일 오전 9:00~11:30

- 장소 : 간호대학 본관 408호

시간	주제	연자
09:00~09:30	An Overview of Duke University School of Nursing	Dr. Michael V. Relf (Associate Dean for Global and Community Affairs)
09:30~10:30	Publishing in High-Impact Nursing Journals	Dr. Marion Broome (Dean of the School of Nursing, Editor-in-Chief of Nursing Outlook)
10:30~11:30	Women's Health Research: A Life Long Journey	Dr. Eun-Ok Im (Mary T. Champagne Professor of Nursing)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7

2017년 간호과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개최

간호과학연구소에서는 5월 12일 '새 정부에 바란다: 국민건강향상을 위한 간호정책 제언'이란 주제로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일시: 2017년 5월 12일 금요일 12:30 ~ 17:30

- 장소: 간호대학 강당

- 주제: 새 정부에 바란다: 국민건강향상을 위한 간호정책 제언

시간	프로그램	
13:30 - 14:00	등 록	
14:00 - 14:10	개회식	사 회: 윤주영(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14:10 - 15:10	기조발표 1 Nurse Safe Staffing: Lessons from an International Review	Dr. James Buchan (Professor, Queen Margaret University, Scotland)
15:10 - 16:00	기조발표 2 간호정책 제언 I: 간호인력수급과 적정 배치 간호정책 제언 II: 건강보험과 정부의 역할	조성현(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김진현(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16:00 - 16:10	휴 식	
16:10 - 17:00	지정토론	좌 장: 김희걸(가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심은혜(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서기관) 고 영(국민건강보험공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장) 김 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 김양중(한겨레신문 의료전문기자)
17:00 - 18:00	주제발표 새 정부에 바라는 간호정책과 간호전문직단체의 역할	좌 장: 임 준(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인숙(한국간호과학회장) 유문숙(간호대학장협의회회장) 박영우(병원간호사회장) 김희걸(간호정우회장)
18:00	폐회식 및 포스터 시상	

학부 소식 01

제 26대 학생회 Sensation 발족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는 대학자치를 실현하고, 학생간의 단결을 강화하며, 또한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부터 국가고시 응원까지, 학생들의 대학생활 구석 구석 들어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학생회는 역대 학생회들과 달리 최초로 회장단 및 사무국장이 모두 남학생으로 구성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학생회는 학생회장 15학번 박광훈, 부학생회장 12학번 고승훈을 위시하여 30여명으로 구성된 실무를 담당하는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와 각 학년대표 및 데이, 이브닝, 나이트, 오프반 반장들이 소집되는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학년에서 간호대학을 특히 더 사랑하는 학생들이 모여 힘을 합쳐 만들어가고 있는 조직이 바로 학생회다. 보상은 전혀 없지만 간호대학을 사랑하는 마음 및 봉사정신으로 달려가고 있는 학생들이다.

제26대 학생회 Sensation은 지난 2016년 11월 30일부로 출범하여 지난 4개월 동안 학생들의 곁으로 찾아갔다. 2016년 11월 30일 재학생 1000여명이 참여한 서울대학교 동맹휴업행진 동참을 시작으로 기말

고사 기간에는 간식사업을 진행하였으며, 12월 말에는 실제와 다른 부분이 많았던 학생회칙 전문을 개정하는 등 임기 첫 달을 바쁘게 보냈다. 2017년 1월에는 보수가 필요했던 관악캠퍼스의 과방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새로이 입학한 수시 합격생들을 맞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으며, 2월에는 학장 주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인 새내기배움터를 학교 측과 함께 성공리에 진행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3월에는 개강총회 및 간호대학 총MT를 통해 학생들 간의 단결력을 높이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 외에도 매주 관악캠퍼스에 있는 총학생회 회의 및 전학대회 등에 높은 출석률로 참석하는 등 학생사회 전반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Sensation이라는 선본명답게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반향을 주고 싶다는 이번 학생회는 앞으로도 여러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학생들 및 동문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응원을 힘입어 간호대학 학생회의 다채로운 활동을 기대해본다.

학부 소식 02

제 26대 학생회 활동

새롭게 출범한 제26대 간호대학 학생회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4개월간 간호대학 학생들과 함께했던 Sensation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대학교 동맹휴업대회

2016년 11월 30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있었던 총학생회 주관 동맹휴업대회에 간호대학 학생회도 참가하였다. 관악캠퍼스 학생잔디에서 서울대입구역까지 이어진 행진에서 간호대학은 대열의 선두에서 많은 집중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간호대 소속 학생 40여 명이

참가하는 등 시국선언에 동참하신 여러 간호대학 교수님들의 뜻을 이어나가고자 하였다.

2. 2016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간식사업

2016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기간을 맞이하여 공부하는 학생들을 응원하고자 간식사업을 진행하였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도시락과 캔 음료를 배부하였다. 이전에 있었던 간식사업과 다르게 이번에는 사전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구성원들의 기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으며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3. 수시모집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2017학년도 수시모집에 합격한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로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이후 여러 미니게임을 진행하며 동기 및 선배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또한 캠퍼스 내에서 다양한 미션을 직접 수행하며 학교 시설 및 지리를 알려주고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자 하였다.



4. 관악캠퍼스 과방 리모델링

관악캠퍼스에서 수업을 듣는 간호대학 학생들의 유일한 공간인 과방의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노후 장판 교체 및 재도색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용이 어려운 가구들을 정리하는 등 새로이 입학하는 신입생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물려주기 위하여 몇몇 선배들이 방학을 반납하면서 직접 힘써주었다. 이 과정에서 신입 학장단 및 행정실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5. 2017학년도 간호대학 새내기 새로배움터

2017년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새롭게 입학한 17학번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 및 친목 도모를 위한 새내기 새로배움터가 진행되었다. 수강신청, 학교소개 등 새내기들의 학교 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으며 그 외에도 인권 및 성평등 교육, 환경안전교육, 고진강 교수님의 특강 등 여러 뜻깊은 시간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새내기 새로배움터에서는 체육대회, 아이스브레이킹 등 학생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프로그램들이 보다 많이 진행되어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6. 2017학년도 1학기 총 개강파티

새로운 학기를 맞아 간호대학 전 학생이 모여 개강을 축하하는 총 개강파티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진 맞추기, 팔씨름대회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고자 하였으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반장들이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프로그램의 상품으로 여러 교수님들께서 학용품, 상품권 등 개인 물품을 기부해주셔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었다.

7. 간호대학 총 MT

3월 17일 간호대학 학생들의 단합을 다지기 위한 총 MT가 대성리 MT존에서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70여명의 학생이 참석하여 더욱 재미있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학생들끼리 바비큐 파티 및 미니게임을 진행하였으며, 모두 잘 협조해주어 안전사고 없이 재밌게 놀다올 수 있었던 행사였다.



〈간호대학 총 MT〉

〈원고작성: 제 26대 간호대학 부학생회장 고승훈〉



〈2017학년도 간호대학 새내기 새로배움터〉

학부 소식 03

학생 이야기 - 눈부시게 찬란했던 2016년 여름

햇볕이 뜨거운 여름날,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병동에 들어섰다. 한 학기 실습을 해본 곳이었기에 친숙하기도 한 공간이었다. 봉사를 하는 동안 그 공간 안에서 스무 명이 좀 안 되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만들어 나갔다. 아이들의 일정에 따라 학습시간에 질문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생각을 더 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유시간에는 아이들의 취미생활을 공유하였다. 스무 명의 무리 중에서도 혼자 있는 아이들과는 놀이를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고, 산책 시간에는 함께 나가서 배드민턴을 치기도 했다.

그 모든 시간을 함께 하면서, 그리고 실습과 봉사활동을 함께한 친구들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한 말은 “여기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밖에 있는 ‘일반적인’ 아이들과 다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완전 틀린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는 말이었다.

실로 그랬다. 아이들과 소통하는 순간만큼은 어떠한 색안경 없이 마주하게 되곤 했다. 아이들이 이 공간에 오기 전까지 그 긴 시간동안 얼마나 여러 번에 걸쳐 손을 내밀었을까. 얼마나 많이 말로 표현하고



간호대학 13학번 김소정

마음속으로 외쳤을까. 그리고 보듬어 주지 못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클까. 병동 밖으로 한걸음 나서서 펼쳐진 사회 속에도, 어쩌면 생각보다도 우리에게 훨씬 가까운 곳에서도 손을 뻗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경험을 통해 직접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조금씩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기를 추천한다.

학부 소식 03

학생 이야기 - 눈부시게 찬란했던 2016년 여름, 뒷 이야기

4학년 1학기, 길고도 험했던 모든 임상실습이 막을 내렸을 때 후련한 마음과 함께 아쉬움이 폭풍처럼 밀려왔다. 지난 4년을 회상하며 아쉬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용기가 부족했던 나의 모습들이 생각났다.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한 발 앞에 더 나아가서 더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해볼 것이라는 후회가 가장 컸다. 하지만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지나간 시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너털해진 실습복과 얼룩진 실습화를 정리했을 무렵 정신간호학 수업 및 실습을 담당하시는 황보영 교수님께서 이런 뒤통수당한 나의 마음을 읽으신 듯 우리 학년에게 특별한 공지를 내리셨다. 다가오는 여름방학 때 소아정신과에서 봉사할 수 있는 학생들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에 3학년 첫 실습을 나가는 마냥 설레었다. 나는 임상실습이 그리웠던 것이다. 더군다나 나의 운에 빛나갔던 소아정신과라고 하시니 더욱 하고 싶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교수님과 연락하고 나서 보니 어느새 내가 병동 수간호사 선생님께 인사 드리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름방학 때 함께 봉사할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었다. 혹시나 지원하는 사람이 없진 않을까 걱정했으나 무려 8명의 소중한 친구들이 함께 해줬다. 특히 이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취업준비로 바빴지만 기꺼이 귀한 시간을 내주었다.

그러나 열심히 봉사를 준비하고 계획했지만 나와 소아정신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였다. 소아정신과의 특성상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봉사자가 적합한데, 미국연수 일정 때문에 직접 봉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대신 수간호사 선생님의 공지를 전달해주며 친구들의 스케줄을 담당



간호대학 13학번 김미정

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 조정자의 역할 또한 우리가 머리에 박히도록 배워온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 아닌가. 실습과는 또 다른 배울 점들이 많았고 수동적인 모습이 아닌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그 동안 후회했던 생각들이 모두 사라졌다. 무엇보다 두 달 동안의 봉사를 끝내고 뿌듯해하는 친구들의 웃음과 그들의 이야기들이 나를 기쁘게 했고, 고맙다고 말씀해주시는 수간호사 선생님의 이메일을 보면서 그간 경험한 것과는 또 다른, 조금 특별한 실습을 한 것 같아 보람찼다.

이러한 뜻깊은 경험을 허락해주신 황보영 교수님과 강미정 수간호사 선생님에게 9명의 친구들을 대신해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은 사랑하는 간호학과 후배들에게는 나보다 조금 더 용기 있는 추억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학부 소식 04

동아리 탐방: Seoul National University Fine Art Club

간호대학 15학번 박지연

안녕하세요. 연건캠퍼스의 대표 동아리 SNUFAC (Seoul National University Fine Art Club)입니다. SNUFAC는 서울대학교 의대와 간호대가 연합한 미술동아리며, 흔히 '미술부'로 불립니다. 미술부는 창립시기가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오랜 기간 활발한 활동을 사랑하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 '활발한 활동'이란 동아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미술 관련 활동을 말합니다. 미술이라 하면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지만 저희 미술부는 실력으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미술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거창하게 이젤 앞에서 품 잡을 필요도, 학원에서 배운 화려한 테크닉을 구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미술부에선 다양한 방식의 표현을 추구해 실제로 CG·설치미술·스크래치·펜화·꽃꽂이 등 여러 형태의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혼자서 개인 작품을 만드는 것 외에도 한 작품을 여러 명에서 함께 완성시키는 합작이나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주제전을 가집니다. 또한 금요일마다 품평회가 있어 자유롭게 작품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친목 도모를 꾀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작품은 봄과 가을에 열리는 전시회에 한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전시회는 의대 학생회관, 상명아트홀, 홍익아트센터 등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지인은 물론 교수님과 미술부 선배님들도 종종 보러 옵니다. 작품의 제작부터 전시까지 모든 과정이 끝나면 동아리가 지원하는 맛있는 저녁식사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방학 중에는 2박 3일 여정의 도자기 MT를 떠납니다. 도자기 체험과 MT의 묘미를 함께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도자기에 직접 그림을 그려 넣고 라면 그릇, 접시, 수저 받침대 등의 도자기를 빚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술부 MT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릴레이



초상화 그리기는 단연 MT의 꽃입니다. 부원들의 손끝에서 형태가 잡혀가는 초상화를 지켜보는 재미와 함께 완성작은 기념품으로 챙겨갈 수 있습니다.

미술부는 복지 혜택도 뛰어납니다. 품평회가 끝난 후의 여유로운 커피 한 잔이나 시원한 맥주는 기본이고 유명 전시장 견학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면 그에 따른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와 졸업생들을 위한 졸업송별회는 미술부의 대표 연례행사입니다.

간호대·의대 학생 여러분이 얼마나 바쁜 생활을 하는지 잘 압니다. 미술부는 이런 정신없는 일상에서 벗어나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쉼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무언가에 골몰하다 보면 기분 전환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데 그 대상이 미술 작품이라면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미술로 학업에 지친 심신도 달래고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잡으세요. 미술부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대학원 소식 01

2016학년도 전기 학위취득자 논문 목록

간호학 석사(15명)

윤영희	발달장애아 어머니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윤희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삶의 질 영향요인
이다운	동기강화 순응치료가 정신과 환자의 약물에 대한 태도와 약물복용 자기효능감 및 약물복용 이행에 미치는 영향
신소연	조기정신증 대상자를 위한 지역사회기반 사례관리 경험
이혜림	부인암 환자의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한 오심과 구토, 영양상태, 대처방법
신유진	아우토겐 훈련(Autogenic Training)이 청소년 인터넷 중독 위험군의 스트레스 반응과 자기통제 및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정유진	교대근무가 간호사의 수면, 피로 및 신경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김미라	입원환아 어머니의 아동간호사와의 신뢰 경험
남수현	인지행동치료 기반 간호중재가 대학생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신체 증상에 미치는 효과
정승민	학령기 모야모야병 아동 어머니의 양육 경험
이재경	당뇨 환자의 질병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확실성 평가가 자가 간호 행위에 미치는 영향
이지영	노인 심부전 환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과 치료 참여
전지혜	중환자 생존자의 집중치료 후 중후군의 실태와 관련요인
정수연	재가 노인의 피로와 관련 요인
조아라	일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경유 입원 노인환자의 욕창 유병률, 발생률 및 욕창 영향요인

간호학 박사(6명)

권희경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실한 환자 가족원의 퇴원준비도 구조모형
이은주	미혼 여성의 경구피임약 복용 경험
양정운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비폭력대화 기반 의사소통 프로그램의 효과
전은주	IMB 모델 기반 당뇨자기관리 모바일 앱 개발 및 효과 평가
김효정	여자대학생의 음주행위 구조모형
문선희	응급실 간호사의 중증도 분류 역량 측정도구 개발

대학원 소식 02

2017학년도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17년 2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 간호대학 제2연구동 강당에서 2017학년도 간호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신입생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전체 오리엔테이션 이후 신입생들은 각 전공별 교수님들과 함께 대학원생으로서 앞으로의 비전

과 연구방향, 진로에 대해 담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17학년도 대학원 신입생은 석사과정 27명, 석·박 통합과정 10명, 박사과정 19명으로 총 56명이다.

과정	성인간호학	모아·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간호시스템
석사 (27명)	성인간호학 16명	모성간호학 1명 아동간호학 3명 정신간호학 4명	간호관리학 2명 간호정보학 1명
석·박통합 (10명)	-	아동간호학 2명	지역사회간호학 4명 간호관리학 3명 간호정보학 1명
박사 (19명)	성인간호학 9명	모성간호학 1명 아동간호학 1명 정신간호학 2명	지역사회간호학 1명 간호관리학 3명 간호정보학 2명

대학원 소식 03

연구지원금 수여

지원금	수여자 이름	전공
서울특별시간호사회 한마음장학금(100만원)	남수현	정신 석사과정
2016년 임상간호연구 결과발표회 대상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	박세연	성인 박사과정
시그마학회 지원금(50만원)	여지영	아동 박사과정
2016 Conference of Asia Pacific Association for Medical Informatics (16.11.2.~5) 우수포스터상	정혜실	정보 박사과정

대학원 소식 04

교수임용

본교 대학원생 중 2016년 교수 임용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용 대학	임용 대상자	전공(담당 교과목)
수원여자대학교	김효정	모성간호학
수원여자대학교	김혜진	성인간호학
국군간호사관학교	최선영	성인간호학
광주대학교	문선희	성인간호학
울산대학교	황영희	성인간호학

대학원 소식 05

국제학술대회 참석명단

본교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국제학술대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ISQua(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 33 th International Conference (2016.10.16.~19)		
Disparities in Needs of Cancer Care among Cancer Patients, Caregivers, and Healthcare Providers (포스터 발표)		박세연(성인 박사과정)
3 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novative Trends in Multidisciplinary Academic Research (ITMAR-2016) (2016.10.20.~21)		
Factors Affecting Health Promoting Behavior Intention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Online Health Information Consumers' Health Information Use (구두발표)		최한나(정보 박사졸업)
The 11 th International Conference(2016.11.2)		
Frailty, Perceived Health Status, and Self-Management Behaviors of Olders with Multimorbidity Using the Korean Senior Center (포스터 발표)		김가혜(성인 박사과정)
Self-care behaviors of elderly patients with peritoneal dialysis (포스터 발표)		이유미(성인 박사과정)
Health Literacy and Participation in Geriatric Patients with Heart Failure (Award of the excellent poster) (포스터 발표)		이지영(성인 석사 졸업)
Effects of dietary detoxification program on serum γ -glutamyltransferase, body composition and metabolic biomarkers in adults (포스터 발표)		김주아(성인 박사수료)
Behavioral factors related to sleep quality and duration in healthy adults (포스터 발표)		심주희(성인 박사과정)
APAMI(Asia Pacific Association for Medical Information) 2016 (2016.11.2.~5)		
A comparison of community-based telerehabilitation, face-to-face, and usual care for low-income elderly women in Korea (포스터 발표)		최한나(정보 박사졸업)
A Design of Smartphone App for Children's Weight Control with Their Parents (포스터 발표)		변아정(정보 석사수료)
Experience and Preference Factor Analysis for pediatric obesity management mobile app (구두발표)		이지산(정보 박사수료)
Using Simulation to Assess User Needs for the Point of Care (POC) Robot Development (포스터 발표)		이형숙(정보 박사과정)
The 20 th East Asian Forum of Nursing Scholars (2017.3.9.~10)		
Attitudes toward death and end-of-life care among nurses in Korean nursing homes (심포지움 구두발표)		김 향(지역 박사수료)
Interventions using technologies for older adul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A systematic review (포스터 발표)		김다운, 김 향, 한정희, 배소영, 성혜현, 이효진
First job experiences of newly licensed nurses (구두발표)		장형은(관리 박사과정)
First job employment and turnover among new graduate nurses working in Korean hospitals (포스터 발표)		윤희정(관리 박사과정)
Nursing educators' perception and educational needs pertaining to current patient safety education in South Korea (포스터 발표)		장해나(관리 박사수료)

대학원 소식 06

대학원생 이야기 -The 20th EAFONS (East Asian Forum of Nursing Scholars)를 다녀와서

지역사회간호학 박사수료생 김 향

2017년은 EAFONS이 개최된 지 20년을 맞이하는 해이면서 학회 내에서 처음으로 2개의 심포지움을 열리는 때였습니다. 동아시아 간호연구자들의 폭넓은 학술 교류의 장에서 우리 대학과 Chiba대학의 간호학과 교수님들이 뜻을 모아 'Aging Issues in Community Health Nursing'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 2을 계획하셨습니다. 크게는 노인요양시설과 지역사회로 나누어 전자는 우리 대학에서, 후자는 Chiba대학에서 맡기로 하셨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첫날 주 강연장에 가보니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청중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20주년을 기념하는 전통 탈춤으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Globalization and Research in Doctoral Nursing Education을 주제로 여러 강연자들의 발표를 들으며 우리 대학원 교육과정의 발전에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관심주제에 따라 두 차례 concurrent session과 심포지움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따라서 청중들도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되었지요. 그 중에 심포지움 2에는 대략 5~60여명이 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께서 영어 발표로 부담감을 갖고 있는 두 대학원생에게 격려를 듬뿍 해주셨고 그분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진심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렇지만 유창하게 발표를 하신 교수님 뒤에 청중 앞에 서니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지고 숨을 잘 쉴 수가 없어 영어 첫마디를 말하는데 애를 먹었지만, 다행히 오래 머뭇거리지 않고 발표를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수를 여러 번 했지만요. 윤주영 교수님은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활동 참여에 대한 내용을, 저는 노인요양시설 간호사의 죽음과 임종간호에 대한 태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Mina Ishimaru 교수님은 Quality process evaluation of community activity for community integrated care system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people를, Reiko Tokita 선생님은 지역사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교육의 spillover effect에 대한 문헌고찰 내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같은 연구실의 김다은 선생님, 교수님과 함께 간 맛 집에서 모처럼 웃음꽃을 피우며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둘째날 아침에는 모처럼 주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숙소 근처 공원과 강가를 거닐며 잠깐이지만 홍콩 사람들을 눈여겨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볍게 걷는 중·노년층부터 조깅을 하는 청년과 노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조정 연습을 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한가로우면서도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포스터 심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간호과학연구소 학술모임 지원을 받아 지도교수님과 대학원 선후배들이 함께 체계적 문헌고찰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물인 초록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김다은 선생님이 심사자의 질문에 설명을 하면서 깊은 관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성현 교수님과 장형은 선생님이 best presenter 상을 받으셨습니다. 모두 함께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주 멋진 끝맺음이었습니다. 학회 참석은 성장 욕구에 불을 지피는 자극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내년 EAFONS은 INC와 함께 Diversity and Universality of Nursing Care and Leadership을 주제로 1월 11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국내에서 열립니다. 동아시아 학자들과 학술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터이니 여러분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동창회 소식 01

간호대학 졸업 30 · 40 · 50 · 60주년 기념 모교방문 행사

2016년 10월 6일 졸업 30·40·50·60주년을 맞은 동문들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모교방문행사가 있었다. 동문들은 관악 캠퍼스 내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사무소를 방문하여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서울대학교 박물관을 비롯한 캠퍼스를 둘러본 뒤 동창회에서 찬조한 오찬을 가졌다. 이후 동창회 기금과 모교 발전기금 전달식과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

졸업 40주년인 76졸 고인숙, 변광록, 성영희, 이숙근 동문은 동창회 보 발간비로 각 100만원씩, 졸업 60주년 맞은 차숙자(56졸) 동문은 100만원을 기부하였다.

이어 동문들이 준비한 졸업 40주년 동문들의 영상은 40년 전의 학창 시절 모습과 현재 모습의 영상을 비교하여 웃음을 자아내며 만감이 교차했다. 졸업 30주년의 합창은 힘 있고 발랄하고 멋진 공연이었다. 특히 졸업 50주년과 60주년을 맞은 동문들의 건강한 모습과 학교에 대한 사랑을 지켜보며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특별히 서울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간호대학에서 준비한 창작 뮤지컬 '심장의 노래를 들어라' 공연을 관람하였다. 졸업한 동문과 간호대학 재학생이 객석을 모두 채웠고, 뮤지컬의 감동과 여운은 강당의 온기 그 이상이었다.



동창회 소식 02

총동창회 홈커밍데이 겸 동문가족 화합 한마당

2016년 10월 16일 총동창회 주관으로 홈커밍데이 겸 동문가족 화합 한마당이 관악캠퍼스 버들골에서 진행되었다. 관악의 가을은 울창한 녹음 뒤의 가을빛이 물드는 시기여서 행사의 빛을 더했다. 간호대학 학

부생이 응원단장으로 있는 응원단 공연과 함께 버들골에서의 점심식사와 다채로운 놀이와 경품추첨 행사가 있었으며, 이인숙 교수의 가족나들이와 김성재 학장의 놀이 참여로 더욱 풍성한 시간을 가졌다.

동창회 소식 03

고궁나들이

2016년 10월 28일 창경궁에서 가을 고궁 나들이가 있었다. 창경궁 해설을 들으며 단풍의 멋스러움과 도심 속 고궁의 멋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동창회 소식 04

동문동정

- 조정숙(82졸) :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장 취임
- 송미순(74졸)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퇴임

동창회 소식 05

2017년도 신년하례회

2017년 1월 5일 간호대학 강당에서 신년하례회가 개최되었다. 행사에는 양광희(72졸) 동창회장과 최스미(80졸) 학장을 비롯하여 역대 동창회장과 이소우 명예교수, 동창회 임원 및 모교 교수 선·후배 동문들이 참석하였다. 서은영 상임이사의 사회로 양광희 동창회장의 신년 인사가 있었으며, 이후 선배 동문들의 덕담과 동문 소개가 있었다. 화기에 애한 덕담 후에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다과를 함께하며 신년하례회를 마쳤다.



동창회 소식 06

2017학년도 1학기 동창회 장학생 명단

간호대학 동창회에서는 2017학년도 1학기 동창회 장학금 816만원을 모교 학부 재학생 9명과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4명(총 13명)에게 지급하였다. 장학금 수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학금명	구 분	성 명	장학금액
간호대동창회	학부	우은성	90만원
간호대동창회(강신자)	학부	오은지	50만원
간호대동창회(김남련)	학부	고송연	40만원
간호대동창회(백월랑)	학부	류슬기	36만원
간호대동창회(신정희)	학부	신채은	100만원
간호대동창회(오세영)	학부	박수빈	50만원
간호대동창회(이귀향)	학부	안체라	70만원
간호대동창회(이애주)	학부	전은비	50만원
간호대동창회(이정자)	학부	이해린	60만원
간호대동창회(김현희)	석사과정	황민화	60만원
간호대동창회(이윤경)	석박통합	정예슬	60만원
간호대동창회(최애옥)	석박통합	박슬기	100만원
간호대동창회(김기주)	박사과정	이미선	50만원

간호대학 발전기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간: 2016년 9월 1일~2017년 2월 28일

학사동문 및 간호대학 교수			
간호대학 76년 졸업동기	간호대학 2017년 졸업동기	간호대학 교수협의회	서울의대간호대학합단
강신자(1963)	강자현	고경희(1966)	김수호 박경희(1974)
김숙자(1966)	김영아(1988)	김영옥(1966)	김채숙(1966)
김향(1995)	박금자(1966)	박달이(1978)	서상옥(1966)
송미순(1984)	양명자(1966)	윤주영(2002)	이경자(1966)
이군자(1966)	이남주	이영지(2007)	이은옥(1963)
장정운(1966)	장춘자(1966)	전은주(2009)	정현명(1992)
조결자(1966)	조성현(1993)	채선미	최덕순(1963)
최스미(1980)	최희승	최희정(1988)	탁성희(1990)
홍경자(1966)	황보영(1996)		

기타
Connie White Delaney(University of Minnesota)

발전기금 안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학술 교류 활동 및 연구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발전기금 참여방법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무통장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CMS 등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서는 간호대학 홈페이지 또는 간호대학 담당자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농협 079-17-065324 서울대발전기금(간호대학)
신한 100-023-643537 서울대발전기금(간호대학)

문의처 : 간호대학 02-740-8802

- * 유증 및 부동산 등 기타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
-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을 위한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월 만원이면 선한 인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후원금 전액은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쓰입니다.

매월 30만원 X *저소득층 학생 약 850명에게 지급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계소득 1분위 이하 학생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1666-2930

www.snu.or.kr 에서 내려받은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으로 찍어 보내주시거나 참여 의사를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문의: 02-880-8004)